

vol. 132
2018.3.15(목)

행복도시 이야기

행복청,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앞장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교육 실시



SEJONG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 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청렴·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월 28일(수)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은 행복도시 민·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직원, 행복도시 내 공공·민간시설 건설현장(129개소) 현장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소장 등 건설현장 책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금지 ▲금품·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다짐하였으며,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청렴분야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및 조치방법 등과 함께 최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렴 외부기관 자문(컨설팅) 실시, 감사전담팀 신설, 부정부패 전담신고창구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부패위험 제거, 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부패방지 시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행복청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청렴 결의 및 서약식을 2월 27일(화) 개최하였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



〈건설현장 교육 및 결의〉

행복도시 전역, 더 입체적으로 더 안전하게

■ 지상 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사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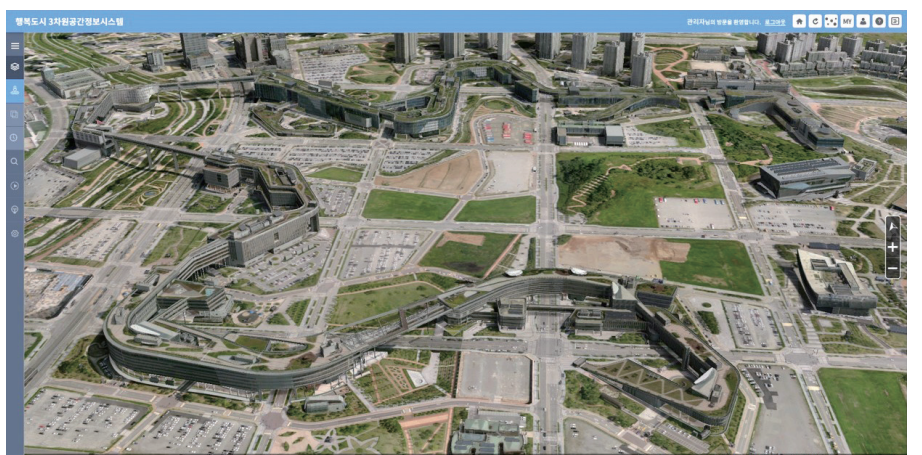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지상·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2차 사업’을 완료, 공공·민간포털 등을 통해 3월부터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은 지상·지하시설물 및 지형 등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여 도시 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도시의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건물 설계나 각종 공사에서 조망권 분석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도시 조성 단계에 맞춰 지상·지하시설물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은 (2015.7~2016.10) 1~2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축한 바 있으며, 2차 사업(2017.6~2018.1)은 1~4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상·지하시설물 추가 구축(지상 5.6km², 지하 368km²) ▲기 구축 지상시설물 현황화(10.42km²) ▲항공사진 촬영(77km²) 등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복도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성과물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map.vworld.kr)와 민간포털(카카오맵)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행복도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브이월드 및 민간포털의 지도서비스를 통해 행복도시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건설·관리 관련 기관은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도로 굴착 등 사업 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

행복청 김태복 기반시설국장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복도시 전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복도시가 미래 첨단 스마트 도시로 건설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원 지상 시설물〉



행복도시 주요 공공건축 건립공사 재개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상
-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재개, 2018년말 준공 예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조감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2개 현장의 품질 확보와 안전 시공을 위해 시행한 동절기 공사 중지를 3월 1일(목)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지 현장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집현리, 4-2생활권)'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보람동, 3-2생활권)'이다.

동해 가능성이 있는 습식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화)부터 2월 28일(수)까지 총 44일 동안 공사 중지를 시행하였으며, 오는 3월 1일(목)부터 건축공사를 비롯한 전기·통신·소방공사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을 일제히 재개했다.

행복청은 공사 재개에 따라 각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 예정공정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재작공계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현장별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현장관계자 등과 관계자 합동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상황, 공정 추진계획, 관급자재 발주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공사 중지 해제 즉시 정상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공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한편,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공사 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행복청 정래화 공공청사기획과장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립될 세종선관위 청사와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의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두 청사의 연말 준공을 위해 시공사, 용역사, 발주청 등이 협력하여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장, 다정동 입주 예정 공동주택 단지 현장 시찰

■ 입주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입주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가장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다정동(2-1생활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2월 20일(화) 오후 2시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정동 공동주택(8개 단지)은 2014년도에 특색 있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건설된 단지로, 주동의 외관을 개방형으로 하거나 벽면녹화, 측벽발코니, 공중정원 및 공중보행로 등의 설계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중 L1(855세대)과 L2(370세대) 단지는

올해 1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 M1(1655세대), M2(1076세대) 및 L3·L4·M7단지(1417세대)와 M4(1631세대)단지는 올해 4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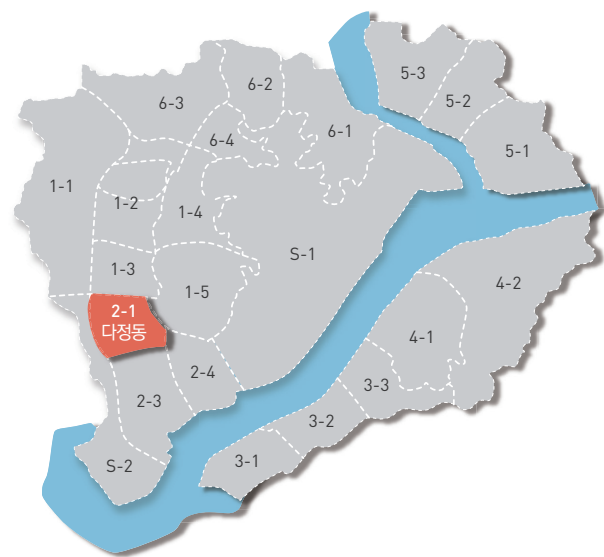
이날 이원재 행복청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 진행상황과 주변 생활여건 및 입주에 대비한 지원체계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였다.

입주가 시작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현황과 도로, 보도블록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집중 점검하였고, 공사 중인 단지는 적기 준공과 더불어 철저한 공사품질 확보 및 하자요인의 사전 제거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특히, 올 3월중 개교 예정인 한결유·초교 등 8개 학교주변의 통학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자재 및 공사차량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행복청에서는 올해 입주하는 14천여 세대의 약 절반(49.3%)을 차지하는 다정동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입주지원센터의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현장 내 자체 운영 중인 민원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기적 현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사현황 관리 및 입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특화 공동주택에 걸맞게 체계적 입주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더불어 주변 기반시설 등에서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위치〉



〈이원재 행복청장의 입주예정 단지 현장 시찰〉

다정동 입주주민을 위한 행복청의 노력

- 입주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현황 점검
- 도로, 보도블록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중 점검
- 공사 중 단지의 공사품질 확보 및 하자요인 사전 제거
- 8개 학교주변의 통학과 이동 불편 해소 위한 자재 및 공사차량 통제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4→8차선 확장 재추진

■ 2017년 타당성재조사 완료, 2018년 설계 완료 및 2022년 개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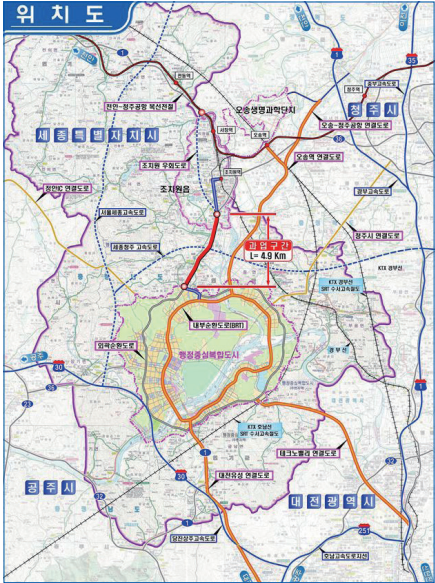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설계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고 2월 27일(화) 밝혔다.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는 두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조치원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천안 및 세종 북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75억 원이며, 기존 4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국도 1호선 중 연기나들목(IC)2 교차로~월하교차로 구간(4km)을 8차로로, 월하교차로~변암교차로 구간(0.9km)을 6차로로 확장한다.

행복청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를 고려하여 4→6차로 확장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서 신·구 도심간 비알티(BRT) 연결을 확보하고자 2016년 12월 8차로 확장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 총사업비 1075억 원을 확정하였다.

이에 2018년 예산 15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에 재착수 하였으며, 연내 설계 완료 및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승일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통해 신·구 도심 간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2월 착공

■ 시공사로 금호산업(주) 외 1개사 컨소시엄 선정, 2022년 준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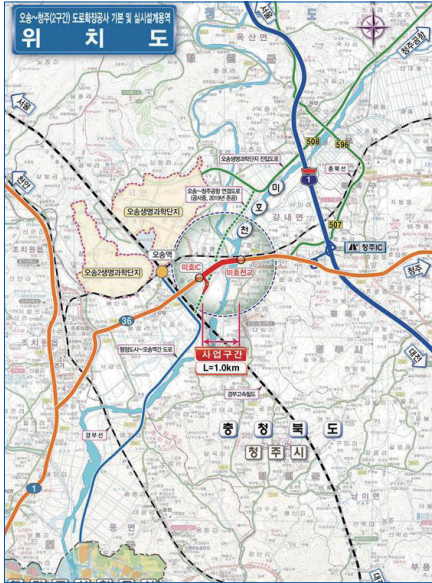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2월 21일(수) 착공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1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산 외 2개사를 건설사업 관리업체로 선정 한데 이어, 금호산업 외 1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는 국도36호선 상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궁평1교차로)에서 강내면 탑연리(미호천교)까지 연장 1km 구간에 총사업비 약 54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의 4차로인 미호천교(360m)를 교량인상과 확폭을 통해 6차로로 확장 시공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의 하폭(620m)을 반영하여 교량 1개소(350m)를 신설한다.

특히,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미호천교 교량 인상(H=0.85m)을 계획하였으며, 신설교량 350m구간은 하천유수 흐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8m이상의 경간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량 하부 구조의 중심선간 거리



윤승일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2019년에 준공하는 오송~청주 1구간에 이어 2022년 2구간 준공을 통해 국도 36호선의 상습지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행복도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 양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순항

■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사 발주

■ 2018년 5월 착공, 2020년 준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정동(2-1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했다고 2월 13일(화) 밝혔다.

*기초생활권별로 문화·교육·체육·행정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에게 제공

** 광역생활권별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통합 서비스 제공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51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2564㎡(부지면적1만763㎡)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은 한옥의 안채, 사랑채의 채 개념 나누기와 전통 한옥 개념의 ‘다정루’를 두는 등 다양한 한국적 공간체험을 연출토록 했다.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기존 편의시설과 함께 인공암벽장, 스קי시장을 새로 배치하여 주민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상,좌하),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우하)〉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4931㎡(부지면적 1만3289㎡)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은 미음(ㅁ)자 형태의 중정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중앙마당을 통해 내부공간을 잇는 산책형 풍경회랑을 구현하여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기능면에서는 장애인정보센터, 어르신 보호서비스시설, 아동보육센터, 여성회관, 청소년 복지시설과 함께 다목적 체육관도 설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청 이상철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현재 행복도시에는 8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2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운동(1-1생활권B), 새롬동(2-2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비교		
구 분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설치목적	기초생활권(동단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복합시설	지역생활권 광역단위 주민을 위한 복지전문시설
서비스 범위	기초생활권별 (2~3만명)	지역생활권별 (6~9만명) * 3~5개 기초생활권으로 구성
설치계획	총 22 개소 (완공 8, 설계 공사중 7, 향후 7)	총 6 개소 (준공 2, 공사중 1, 향후 3)
기능	생활권별 공공시설, 문화, 교육, 체육시설 등을 복합한 편의시설	건강가정 및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종합한 도시복지 전문시설
주요시설	주민센터(동사무소), 예비군 동대, 도서관, 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여가 및 교육시설 * 지역생활권마다 수영장,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 추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양성평등센터, 모부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지원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근거	행복도시법 제45조 행복도시개발계획(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행복도시법 제45조 행복도시개발계획(복지 보건 문화체육시설 공급계획) 영유아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2018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진단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입니다.

기간 2018.2.5.(월)~4.13.(금), 68일간

진단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진단주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국민

주요활동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언

안전신고·제언 참여 요령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고,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 (<https://www.safetyreport.go.kr>)에서 자유롭게 제언해 주세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요

-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자치경찰제 확대
- ⊕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 지역 간 격차와 규제는 줄여들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가능 강화,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 확대
- ⊗ 당신의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캠페인
홍보대사 정은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018.1.25 ~ 5.15

#불과몇시간전 #추억의장소
#캠핑 #글램핑 #산불조심

산불예방은 내일을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산불신고 :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산림청

밀마루 전망대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9:00~18:00, 연중무휴
(단,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

밀마루 전망대

위치_ 세종시 도움3로 58
(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 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 세종시 어울누리광장로 115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 044-867-791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